

# 양강 구도 종식 시킨 '황소의 난'

〈수도권-경상권〉

〈황인혁 별명〉

황인혁, 변칙작전으로 왕중왕 등극  
충청권 약진...수도권과 연합 해체  
수도권-경상권-충청권 3파전 양상

올해 경륜 왕중왕전의 주인공은 3연패를 노리던 정하늘(21기, SS반)도, 전통의 강자 정종진(20기, SS반)도 아니었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변방으로 평가받던 충청권의 황인혁(21기, SS반)이었다. '벨로드롬의 황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직한 지구력이 장점인 황인혁은 허점을 찌르는 변칙적인 자리 잡기와 완급 조절,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설 수 있는 기습 선행 능력까지 겸비하며 '벨로드롬 왕중왕'으로 거듭났다.

● 수도권-경상권-충청권 혼전구도의 시작

데뷔 이후 대상경주서 우승한 경험이 전혀 없던 황인혁은 올해 4월 열린 스포츠조선배 대상경륜에서 처음 우승을 맛봤다. 당시 황인혁은 선행승부 시점을 빠르게 가져간 팀 선배 김주상(13기, S1반)을 최대한 활용해 힘을 비축했다. 반주 이후 헛하기로 힘차게 뻗어 나오며 후미를 마크하던 정하늘의 추임을 봉쇄하는데 성공, 우승을 차지했다. 중반까지 이어지는 김주상의 시속감도 좋았지만 짧은 순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버틴 황인혁의 힘도 대단



2019 경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황인혁이 결승선 통과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우직한 지구력과 허점을 찌르는 변칙적인 자리 잡기를 내세워 '벨로드롬 왕중왕'에 올랐다. 사진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했다. 큰 경주에서 다소 빠른 승부 시점으로 인해 후미 선수들에게 우승을 내준 경우가 많았던 황인혁은 팀 선배를 활용한 짧은 승부로 우승의 짜릿함을 맛보았다. 이로 인해 큰 경주에서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징크스를 깨는 계기도 마련했다.

세종팀이 동서울팀·김해팀과 버금

는 강팀으로 커지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양립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현재, 황인혁의 우승은 의미가 크다. 과거에 특선급을 휩쓸다시피 했던 창원팀·김해팀에 맞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황인혁의 기세도 수도권과의 안정적인 타협보다 과감한 우승 사냥에 초점이 맞춰진다.

● 뻘한 작전은 가라, 급소 노린 일격

이번 왕중왕전에서 황인혁과 충청권 선배인 김현경(11기, S1반)의 자리 잡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경남권 성낙송(21기, SS반)과 충청권 황인혁의 자리 잡기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둘은 21기 동기이지만 황인혁이 수도권 선수들을 배제한 채 경상권 선수와 자리 잡기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누구나 쉽게 파악하는 작전은 별 효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황인혁은 경주 초반 변칙적인 자리잡기 운영으로 다른 선수들을 놀라게 했다.

이 작전은 대성공했다. 후미에서 조금 힘을 참지 못한 정종진이 타종 전 거의 2코너 부근부터 시속을 올렸다. 정종진의 초반 시속을 이기지 못한 신은섭(18기, SS반)이 마크를 놓쳤고 신은섭 후미의 정하늘까지 시속이 죽으면서 수도권 연대가 완전히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황인혁은 정종진의 후미를 추주하며 체력을 아꼈고, 막판 추입으로 우승에 성공했다.

배재규 '경륜뱅크' 예상팀장은 "강팀으로 성장한 세종팀을 중심으로 충청권 선수들의 득세는 특선급 판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맞대결 양상은 이제 불가피하다. 앞으로 혼전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미사리 경정본장 '티머니'로만 입장

미사리 경정본장 고객은 31일부터 현금으로 발권해 입장할 수 없고 티머니카드로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변경되는 입장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고객 입장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24일부터 미사리 경정본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 전자서약서를 작성하면 선착순 3000명에게 티머니카드를 무상 증정한다. 입장제도가 바뀌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은 경정장 외2분 및 안내센터 인근에서는 기존 티머니카드를 소지한 이용객에게 휴대용 부채를 500개 선착순 증정한다. 한편 안내센터 개관에 따라 주출입구가 외2분으로 바뀌며 한시적으로 주출입구로 운영됐던 외3분은 이용할 수 없다. 정용운 기자

광명스피돔 키즈파크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4일 광명스피돔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광명스피돔 키즈파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광명스피돔 2층과 3층에 마련된 문화이벤트존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이벤트존에는 스포츠체험존, 유아놀이방, 가족북카페, 스피드라운지 등을 조성했다. 협약식에는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정승열 광명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광식 경륜경정총괄본부 영업본부장,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강문중 광명시기독교연합회 총무 그리고 5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다승·상금 선두 독주...심상철 전성시대

경정 전반기 결산

23승·상금 6620만원 압도적 1위  
올 시즌도 11번·120번 모터 강세

가히 심상철의 독주다. 경정 전반기 다승과 상금 부문에서 누빈식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심상철은 9일까지 총 46회 출주해 23승을 거두었다. 승률 50%다. 좋은 모터만 배정받아 다승 1위에 오른 것도 아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모터 배정은 북북복인데 중하급 또는 하급 모터를 배정받아도 정확한 세팅과 조종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심상철의 뒤를 조성인(18승), 3위 김종민(17승), 4위 김응선(16승)이 바짝 추격 중이다. 편성과 모터배정 운만 따라준다면 남은 후반기 다승 부문 왕좌를 두고 치열한 선두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승으로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김현철, 이태희, 민영건, 유석현, 이주영 등의 순위 변화도 관심거리다.



심상철

상금에서도 심상철은 일반과 특선경주에서 꾸준히 입상하고 있다. 올해 첫 대상경주와 2차 GP P 쟁탈전에서 우승을 해 상금 6620만4750원을 받았다. 상금순위 경쟁은 1위 보다 2위부터 치열하다. 2위 김응선(4984만5000원)부터 3위 김종민(4762만5000원), 4위 조성인(4630만6000원), 5위 유석현(4598만6750원), 6위 이주영(4461만8000원), 7위 서휘(4419만9750원), 8위 기광서(4303만4500원), 9위 이태희(4219만4000원), 10위 민영건(4139만5000원) 등이 좁좁히 서 있다.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상금 차이가 적다.

현재 사용하는 2018년형 모터는 최상급으로 평가되는 11번과 120번 모터가 여전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선수가 모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가 선수를 입상으로 이끈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이외에 눈에 띄는 모터로는 최근 9경주 착순점을 기준으로 51번 모터가 8.89로 급부상하고 있다. 81번, 103번 모터는 랭킹 1위 11번 모터와 함께 착순점 8.44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다. 5위는 18.22인 129번 모터이며, 75번, 150번, 158번, 35번 모터 또한 상위권을 기록해 남은 기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용운 기자

**주식회사 동진제약**  
Dong-jin Pharmaceutical Co., Ltd

**프리미엄 무료체험 행사**

# 황궁침향단

皇宮沈香丹

**특별행사**

몸에 좋은 황궁침향단으로  
매일매일 활력을 충전하세요~

마카 16% 함유!!

침향분말 14% 함유!!

3.75g×3알

침향, 마카를 비롯하여 가시오가피, 작약, 당귀, 숙지황, 천궁, 감초, 백출, 홍삼, 녹용, 로얄제리 등 20여 가지 엄선된 전통원료를 한알, 한알에 담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황실에서만 사용했던 귀한 침향**

- ▶ 기력이 떨어지신 분
- ▶ 피로가 누적된 분
- ▶ 체력이 떨어지신 분
- ▶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원하시는 분
- ▶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 기력과 스테미너가 약한 분

**무료체험 신청전화**

# 1588-4063

전화주시면 정품3알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